

판유리 시장 경쟁 고조

한국유리 · 금강 신증설 ... 95년 공급과잉 필연적

판유리의 공급과잉 현상이 94년 들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판유리 생산기업인 한국유리와 금강이 그동안 판유리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순탄한 과점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로 공장증설에 나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유리는 막대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장치산업으로 1950년대 초반까지는 수입에 의존해 오다가 한국유리가 12만 상자(1상자=46.8 KG) 생산을 시초로 62년 60만 상자, 70년에 270만 상자, 84년에 620만 상자를 생산했다.

88년에는 금강이 참여하여 1195만 상자, 90년에는 1500만 상자를 생산하는 등 최근 수년동안 연평균 18% 이상의 수요 및 공급 증가율을 기록해 왔다.

국내 판유리 생산현황 (단위 : 천상자)				
구 분	공장위치	생산방식	시설	생산능력
한국유리	부 산	Asahi Type	1	1,100
	군 산	Float 공법	3	8,250
	무너유리	Roll out	1	780
	부 산	Roll out	1	1,100
금 강	여 주	Float 공법	2	5,500
	여 주	Roll out	1	1,100
합 계			9	17,830

또한 판유리는 기초건자재 중에서 드물게 공급과잉을 빚고 있는 품목으로 한국유리가 지난 70년대에서 80년대 말까지 독점체제를 굳혀왔으나 거대한 조직과 자금을 배경으로 한 금강이 88년부터 신규참여해 2파전으로 판도를 바꿔 놓았다.

이같은 판도변화의 주요인으로는 보온단열재 및 내장재 등의 건자재 분야에서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금강이 한국유리의 독점 아성을 뚫고 판유리 시장에 뛰어들어 상당부분 시장을 잠식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유리가 최근 부산공장에 플로트 4호기를 착공한것을 비롯, 금강도 현재 경기도 여주 공장에 플로트 3호기 증설을 추진중으로 있는등, 만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걸려 증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불공단에 제2공장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 2개기업이 추진중인 증설라인이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갈 경우 국내 판유리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유리는 사업다각화 전략을 펴는데 비해 금강은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에 치중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한국유리는 판유리 이외의 유리섬유 및 결정화유리, 전자필터 등에 신경을 쓰는 반면 금강은 유리원료인 규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바닷모래 대신 규암을 깨뜨려 쓰는 특수한 공법을 개발해 공정효율을 30% 이상 높인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 판유리 생산기술도 많이 진보하여 재래식 Fourcult공법에서 Asahi Type공법으로 전환됐다가 근래에는 최첨단기술인 Float공법을 도입 양질의 판유리가 생산되고 있는 등 기술개발에 따른 시장활성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